

인도 그림기행

17 그림·글 이호신

염원·상처 함께 간직한 회한의 땅



◇아무르강의 그루와 마을 (199×70cm).

강마을과 순교터에서의 단상 (그루와마을과 코삼비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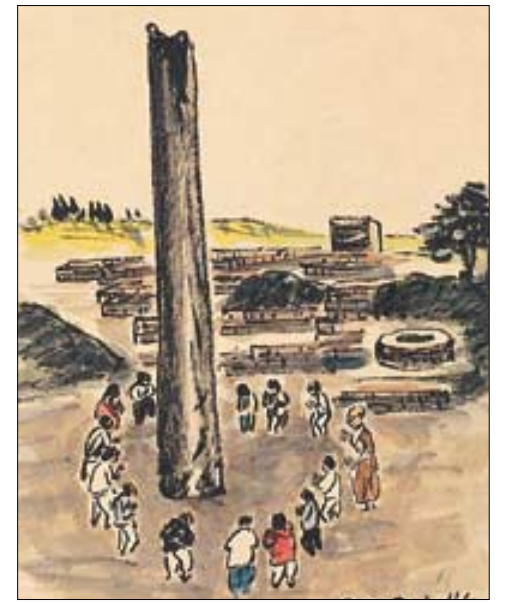
“나마스떼, 짜이 이크르프 비지에(안녕하세요, 짜이 한잔 주세요).
자파티 이크 비지에(자파티도 한잔 주세요).
현지 가이드에게 배운 말로 이른 아침 동진(루피)을 내고 사먹는 따끈한 짜이(홍차에 우유를 섞은 차)와 구수한 자파티(밀가루를 반죽하여 찜내로 만든 구운 빵)는 인도 어디에서도 인가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성자처럼 기른 사제가 옷통을 벗은 채 화덕에서 자파티를 구워 집게로 접시에 담아 주니 일행은 열을 지어 그의 겸손은 나신(肉身)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한편 카레에 밥을 비벼 손으로 집어먹는 인도인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하여 그세 모두의 눈길에 자연스럽다.
갑작스레 골목길에서 낙타가 나타나 곱사등이 아주 휘도록 사탕수수 질터미가 산을 이룬 채 뒤쫓거리며 걸어가니 일행은 셔터를 누르며 환호성이다. 몇 투피를 의식한 뒷인지 고삐를 잡은 주인은 몇 번이고 포즈를 취하며 낙타를 좌우로 이끈다.
칸푸르(Kanpur)를 출발 코삼비(Kosambi) 성지로 가는 길. 코삼비는 바라나시(Varanasi)로 가는 갠지스강과 아무르강이 합류하는 길목에 자리하는데 현재의

지명은 코삼(Kosam)이다.
예전 아무르강에서 아난다 비구가 배를 타고 건너 온 나룻터가 있다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루와(Gruhwa)마을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인도 농가의 풍광이 펼쳐졌다. 황토벽과 흙으로 구운 벽돌위에 나무 겹집과 짚으로 엮은 지붕들이 오종종 드러나고 사람들은 낮은 이방인들을 이종의 눈빛으로 맞이한다.
즉 가족모두 뛰쳐나와 구경하는 이와 숨이 들끓는 어린양을 품에 안은 아이, 무료하게 장죽을 늘어뜨리고 있는 노인, 고추를 내놓고 우는 아이, 아기를 안고 입은 아낙들의 시선이 나그네 심정에 일렁인다. 그 중 푸른 원색의 사리와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모녀의 모습이 눈앞을 마주해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란 아낙은 사리를 뒤집어 써 버린다. 내 육신이 그녀를 언짢게 했으니 이를 어찌라. 그러면 풍광이나 간종보다는 지금껏 남아 떠도는 미안함이다. 마을 뒤 언덕에 낡은 흰두사원과 그 아래로 강이 흐르는데, 소녀는 흐르는 강물에 설거지를 하고 한 쌍의 말이 한가로이 풀기를 서성이는 이곳이 예전 불법을 전하던 나룻터였다.
강을 바라보다 말고 순교(殉教)의 성지(聖地)로 불리우는 코삼비 유적지를 찾아 발길을 돌리자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른다. 지평선 들녘에 유일하게 솟아 있는 부러진 석주하나. 역시 아소카대왕의 석주로서 깊은 역사와 함께 벽돌로 남은 전황이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581년(전법9년) 코삼비를 처음 방문한 붓다는 당시 고시파(Ghosta)장자가 기증한 고시파라마(Ghostarama)절터에 머물렀다. 전법은 고시파장자들의 후원을 얻어 활기를 띠었지만 반대로 불행한 사건을 맞게 된 곳이기도 했다.
즉 사소한 계율 문제로 승단이 분열, 이를 지켜본 붓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실망한 붓다는 코삼비를 떠나고, 시민들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거부하는 사태로 변절한 회한의 장소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 자기 입장이 강해 종교마저 집단이기주의로 몰간한 사실을 경계해야 하는 일에 대해 불교 초기경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만을 진리라 하면서, 서로 다른 진리

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논쟁에 이겨도 잠시 칭찬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는 '나야말로 승리를 거두리라'는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사악함을 물리친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숫타니파타) '파수라' 편>
한편 코삼비는 옛날 변장했던 밤짜국의 수도였는데 당시 고시파라자에서 일어난 순교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순교의 주인공 쿠주파라(Khujjara) 여인은 코삼비궁 사마와며 왕비의 하녀였는데, 절에 머물던 붓다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견성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왕비와 5백궁녀의 법사가 되어 불법을 퍼던 중 사악한 외도들이 궁중에 불을 지르자 피하지 않고 절가부좌로 태연부동(泰然不動), 불퇴전(不退轉)의 용맹으로 불법(佛法)의 불사(不死)경지를 실증해 보였다고 한다. 이를 따르는 5백 궁녀 또한 쿠주파라와 함께 순교한 곳이 코삼비성지이다.<법구경>(고려원, 1991) 참조
황량한 절터를 살펴보니 우물더, 승방, 그리고 설법지로 추정되는 규모의 벽돌담 층계 특색엔 무성한 풀만이 새 생명으로 돌아나 있다.
그 들녘에 꽃히는 햇살아래 나뭇는 영혼의 숨결들.

부러진 석주는 그날의 염원과 상처를 함께 보여주는 듯하여 산 자들은 목탁소리와 함께 탑돌이를 시작했다.
lhs1957@lycos.co.kr



◇코삼비 유적에서 (22.5×30.5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더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탈함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역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통 주수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대권 특가소로 전국 어디나 받아 관인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집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중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동체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9